

“조형 작업 확장 시도…광주 빛내는 작가 될 것”

CULTURE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2016년 개관 이후 청년 예술인들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남구 사직길 소재 광주시립미술관 산하 청년예술센터가 제9기 입주작가를 선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9기 입주작가로는 전남대 출신 2명과 조선대 출신 4명 등 6명이다. 지난해 입주작가 때는 연극 및 무용, 음악 등과 시각예술이 섞여 있었던 데 비해 올해는 시각 부문 서양화 3명과 조각 3명으로 남 작가 3명, 여 작가 3명이다. 20대는 4명, 30대는 2명으로, 모두 20~30대 초년병 작가들이다. 이들은 작업공간을 제공받은 경우로 생계 비용 마련이나 재료비 등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터뷰 당시에도 일부 작가들은 아르바이트(알바)를 가아 해서 매우 분주해 보였다. 대개 신진작가들인지라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낮에는 작업을, 밤에는 알바를 나간다고 말했다.

이런 사연의 주인공들인 입주작가들로는 강동호(조각·종합), 고예진(서양화·종합), 공윤정(조각·종합), 김태양(조각·종합), 문진성(서양화·종합), 박우인(서양화) 씨 등이다. 이중 강동호 작가와 김태양 작가를 제외하면 모두 20대 작가들이다. 말 그대로 청년작가들이 썩이다. 특정 조력자가 있다가보다는 스스로 작가와 현실적 생활을 책임져 나가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신예 작가들로부터 입주작가로서의 소감과 작업계획 등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 포부

밤엔 알바…낮 동안 창작 ‘은힘’

회화·조각 3명씩 20·30대 6명

제9기 내년 1월까지 활동 펼쳐



제9기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들인 왼쪽부터 공윤정, 고예진, 강동호, 김태양, 문진성, 박우인.

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입주작가들 중 가장 만이인 강동호 작가는 개인전 3회를 열었을 만큼 활발한 작업을 펼쳐왔지만 처음으로 입주작가가 된 경우다. 강 작가는 “원래 작가들의 조형 작업이 확장성있게 진행되는 동시에 열심히 작업에 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동안 혼자 활동을 해 왔는데 입주자 확정돼 활동에 들어간 만큼 다른 작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작업에 힘을 쏟겠다”면서 “조각 전공을 했으니 그쪽으로 조형작업을 했지만 시각예술에도 신경을 써 볼 생각이다. 요즘 회화와 다양한 매체 간 융복합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생인 박우인 작가는 첫 입주주 레지던시 공간이 생각보다 커서 작업 사이즈가 커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지원 배경으로 학부 때 선배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을 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좋은 공간을 얻은 만큼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하겠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중압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에서의 작업과 이곳의 작업이 비슷할 수 있으나, 레지던시 작업은 개인적으로 보기에 더 진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 분위기에 맞게 회화를 중심으로 하고 조각을 재해석해 볼 것이다. 조각 작업을 조망하면서 다시 회화로 돌아오는 작업을 구상해보고 있다. 회화와 조각 사이 생방향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태양 작가는 대인시장과 광주문화재단 등의 창작공간 레지던시를 세차례 경험해왔다고 했다. 입주작가가 됐다는 것은 작가로서 큰 플랫폼이 생겼다는 점에서 작가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 들려왔다. 그는 “예전에는 용접으로 철판 작업을 했지만 이번 입주주 통해서는 일종의 키네틱 아트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큰 공간이 생긴 만큼 더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하고,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고예진 작가는 2002년생으로 이번 입주작가 중 가장 막내다. 그는 인터뷰 당시 알바를 가는 시간이 돼서 분주해 했다. 짧게 인터뷰에 나선 고 작가는 첫 입주 경험에 대한 소감을 짧게 언급했다. 그는 “솔직히 입주작가가 될 것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어렵게 입주작가가 된 만큼 열심히 작업을 해서 광주를 빛내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우규 매니저는 “프로필에 중함으로 새긴 대는 복합작업 느낌이 있어서였다. 올해는 시각 예술 중심으로 작가들이 입주해 서로 자극하면서 더 깊이 있는 작업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작가들의 입주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2026년 1월까지 10개월 간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 발표

감싸 안고 받아들이는 ‘포용’ 형상화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직무대행,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타이트로 열릴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EIP는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의 의미와 담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디자인 철학을 아우르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화두로 우리는 서로에게 무한한 세계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투영하는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제를 형상화 한 EIP는 포용디자인의 의미를 보자기와 연결해 모든 것을 넓게 받아들이는 ‘포용지덕’(包容之德) 글자 각각을 보자기로 감싼 네 개의 오브제로 표현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천이 유연하게 변형되며 만들어진 주름과 곡선은 빛의 스펙트럼처럼 확장돼 네 가지 색으로 자리한다. 특히 어떤 것을 감싼 형태가 디자인으로 서로 다른 우리를 감싸고, 연결하며, 함께 ‘너라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는 각각의 존재가 이어져 만들어지는 포용의 순간이자 포용디자인의 출발점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는 브랜드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학부(장)와 작문 스튜디오와 외의 지속적 인의 끝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가 발표된 지난 3월 이번 주제의 핵심 키워드로 포용 디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용디자인은 유니버설에서 포용이 다뤄진 적은 있으나, 디자인계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가 포용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디자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사전 예매는 6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인공지능 피아노와 대금 연주자 협연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 26일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인공지능과 예술을 융합한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를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립광주과학관 본관 1층 상상홀에서 연다.

이번 콘서트는 인공지능과 예술가의 융합 공연, 강연,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1부 행사에서는 봄을 주제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이 작곡한 곡을 인공지능 피아노 인피니아(INFINIA)와 대금 인공지능 공연가 예담이 협연으로 선보인다.

인피니아는 관람객의 얼굴표정과 주변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음악을 즉석에서 작곡해 연주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2부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개발자인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장 겸 AI융합학과 안창욱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탄생과 진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올린다.

음악 창작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3부 행사는 1부 무대에서 인간과 협연을 펼친 인공지능 피아노를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현수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은 그림, 문학, 음악 등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예술분야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과 인공지능 피아노 인피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 행사 모습.

니아(INFINIA)를 통해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경험하고 발전방향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참여 방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150명 사전 예약 접수하면 된다. 입장료는 1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제5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제5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을 오는 5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호남학산책은 수신을 원하면 누구나 메일링서비를 통해 호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만100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속의 재발견, 호남근대시문

학, 문화유산 기록과 현장, 한 폭의 그림 하나의 이야기, 고문서와 옛 편지, 향일의 성자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원고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문화·예술·역사·명소 등에 대한 수기나 칼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당선작은 ‘호

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대상(1편)에 150만원, 최우수상(1편)에 100만원, 우수상(1편)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이메일(kamjabong@hiks.or.kr)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호남 지역의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www.중앙미용학원.co.kr

취업, 창업, 자격증 합격률 1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미용교육의 선두주자!! 52년 전통 명문 뷰티 전문아카데미”

▼ 고3 미용위탁교육 지금 접수중!

3월 ~ 12월 국가자격증 + 취업실전교육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수강료, 재료, 수당) 전액 국비지원

▼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비·재료100% 무료(1유형 참여자)

·매일 참여 수당 및 취업성공시 수당 지원

·만 18세 이상 실업자 누구나 가능 (단, 위계형선선인 경우 만 15세 이상 가능)

18세이상 실업자·재직자 전과정 전액 국비

·헤어미용국가자격증
·피부미용국가자격증
·네일아트국가자격증
·메이크업국가자격증
·이용사국가자격증
·헤어실전취업(연구)
·남성커트 숙성과정
·피뮈여성커트취업과정
·네일아트연구취업과정
·피부미용연구취업과정

현재접수중

주·야간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미용사

취업·창업실전교육

미용·이용·기능장

피뮈포인트성인전문숙성
남성전문숙성교육

인문계 고3예정자 미용100% 지원

훈련비
재료
교육비

디자인·승급·개업·미용실운영 고객실습교육

선착순 모집 중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동구 금남로 232-4 (금남로 2가, 우리은행 옆)

미용·이용기능장 광주, 전남 지정 교육원
피뮈포인트교육 / 한국최초 멤버스쿨

접·수·문·의

062) 225-9888